

신명나는 굿판, 거침없이 열씨구!

광주예술난장 아홉 번째 굿판

9월2~3일 남구 대촌전통센터
5·18 행불자 닛 위로 신안 씨김굿
굿물 줄 함께 만들고 먹거리 체험도

“우리의 전통 난장 문화와 컨템퍼러리한 굿이 만나 판을 벌인다!”

숫대타기, 열른(마술), 살판, 방울던지기 등 전문 연희를 비롯한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같이했던 소리와 춤, 기예들 그리고 미신으로 내몰렸던 굿 등 일제 강점기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이 땅의 수많은 공연예술들이 사라져 갔다.

사라져간 그 연희들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발전해 왔더라면 어떤 판이 이어지고 있었을까?

광주예술난장 굿판 추진위원회와 (사)전통문화연구회 열씨가 새로운 공동체 난장 문화를 이어가고자 9월 2~3일 대촌전통커뮤니티센터에서 ‘광주예술난장 아홉 번째 굿판’을 연다.

이번 굿판에는 굿물이 등장한다. 굿물은 굿에 쓰이는 소도구를 의미한다. 올해 굿물은 ‘줄(Rope)’이다. 줄은 아시아 각국을 비롯한 세계적으로 널리 공유되고 있는 인류 문화유산이다. 줄을 통해 풍요를 기원하고, 서로 이어주고, 액을 끊기도 하고 막는 등 다양한 의미를 공유하고자 한다.

이번 굿판은 소토마당, 굿마당, 판마당, 향구네마당으로 구성돼 있다.

소토마당은 이야기 굿으로 시작된다. 광주예술난장 굿판과 광주 공연문화를 점검하고 학계와 공연계, 관객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광주예술난장 굿판의 10년을 내다보는 자리다. 2일~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양과동정에서 열린다.

2일에는 ‘굿과 축제의 공동체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3일에는 ‘광주 공연예술축제의 상생과 발전에 대한 좌담회’가 준비돼 있다.

굿마당은 굿도 보고 떡도 먹고 재미도 나누는 시간이다. 명진전과 신진전으로 나뉜다. 명진전은 전남도무형문화제 52호 신안 씨김굿 예능보유자 유점자 명진이 5·18 당시 무명열사들과 행방불명된 이



놀이패 ‘한라산’이 펼치는 ‘세경놀이’ 공연 모습.

〈열씨 제공〉

들의 닛을 위로하는 씨김굿 연행과 굿에 사용되는 여러 도구들을 선보이는 ‘무구전시’를 준비했다.

신진전은 지역에서 전통을 지키며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예술가들이 참여한다. 프로젝트 앙상블 런, 창극프로젝트 소리치다, 가야금병창단 현의 노래, 여성연희단 다움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판마당은 신을 맞이하는 영신, 즐겁게 노는 오신, 신을 보내는 송신으로 구성된 전통 축제방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판이다. 일반적으로 보기만 하는 무대형식이 아닌 마당을 중심으로 원형 형태의 객석을 마련해 공연자와 관객 간의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열린 마당으로 준비했다.

9월2일 풍물굿패들과 관객이 함께 준비한 ‘줄 모시기’를 시작으로 남창동 줄타기, 레인보우수, 마당극 세경놀이, 태양의 조각, 사자와 도깨비, 크로키 키브라더스, 거침없이 열씨구, 나 뽀얏쥬 등의 공연

이 3일까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삼신할미가 하늘에서 내려와 생명을 가져다주고, 용을 상징하는 큰 줄은 하늘로 돌려보내며 관객들과 함께 너와 나를 잇는 축제의 굿물 ‘줄’을 보내는 의식을 치르는 ‘송신’으로 마무리된다.

향구네마당은 굿에 쓰이는 소품인 굿물을 함께(향구네)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다. 지난 19일과 26일 광주 시민들과 굿에 쓰일 ‘큰 줄 꼬기 시민참여 행사’를 진행했다.

2일과 3일에는 팔찌, 허재비 등 굿물체험을 할 수 있는 굿거리와 주막, 식당 등 지역민과 함께는 먹거리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 축제가 펼쳐지는 대촌지역의 양과동정, 포충사(태고정수), 부용정 등 지역문화유산을 둘러보며 해설도 듣고 공연도 볼 수 있는 ‘대촌마실담방’도 진행된다. 문의 062-676-3844.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김도연



서현일

풍성한 9월 베토벤 소나타

김도연, 5일 전곡 연주 완성...서현일, 7일 피아노 연주회

9월, 베토벤의 음악이 바이올린과 피아노 선율로 찾아온다.

바이올린 전곡 연주회를 기획한 김도연과 피아노 전곡 연주를 진행중인 서현일씨의 공연이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도연의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연주회의 대미를 장식할 무대가 열린다. 9월 5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김도연은 이번 연주회에서 ‘바이올린 소나타 2번’, ‘바이올린 소나타 3번’ 그리고 ‘바이올린 소나타 9번 크로이처’를 들려준다.

베를린 국립음대출대, 드레스덴 국립음대에서 수학한 김씨는 귀국 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광주솔리스트앙상블, 아르스필 하모니 오케스트라 악장, 앙상블 베를리나와 앙상블 마주얼 리더로 활동중이다.

김도연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무대에 오르는 피아니스트 마미 미야케는 도쿄출신으로 동경대, 베를린 국립음대에서 수학한 후 1994년~2002년 베를린 필하모니홀에서 활동했다. 이후 2010년부터 베토벤 전곡연주 프로젝트 연주를

통해 그녀만의 독창적인 음색을 선보이며 연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티켓 가격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10-4301-1929.

2014년 베토벤 전곡 소나타 연주회를 시작한 피아니스트 서현일은 총 8번으로 기획한 시리즈의 7번째를 연주회를 갖는다. 9월 7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이번 무대는 ‘소나타 27번 E단조, Op. 90’, ‘소나타 26번 G장조’, ‘소나타 제29번 험머클라비어’로 채워진다.

호남예술제 출신으로 광주예고 재학중 독일로 유학을 떠난 서씨는 드레스덴 국립음대에서 수학했으며 귀국 후 서울시립교향악단 현대음악 시리즈인 ‘아르스 노바’ 객원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다.

광주시향, 대전시향 등과 협연했으며 지난해 한국음악협회가 수여하는 한국음악인상 신인상을 수상했다. 현재 전남대, 광주대, 광주 영재교육원 등에 출강중이다.

티켓가격 전석 2만원. 문의 010-3646-7958.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클래식과 가을맞이’...9월 인문학 강좌 다채

9월4~30일 광주시민인문학

실천인문학을 지향하는 광주시민인문학이 9월 가을을 맞아 새 강좌를 개설한다. 그동안 광주 시민인문학은 토론인문학을 통해 자유정신을 함양하고 공동체 감각을 발굴해 ‘인문적 통찰과 미학적 승화의 완성’이라는 가치 구현에 초점을 맞춰왔다.

오는 9월 4일부터 30일까지 4주에 걸쳐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개최되는 47기 강좌는 인문학, 철학, 클래식, 시창작, 일본어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시민들 참여 위주로 진행된다.

정규강좌는 월·목·토요일(오후 2시) 강좌와 월·화·수·목요일(오후 7시 30분) 강좌로 나뉘어 진행된다. 월요일에는 안철 음악해설가의 ‘일상에 클래식 산울음-여름에서 가을로’(오후 2시)와 이현기 극단 ‘연우랑’대표가 “가족을 연기하다-남독연극”으로 시민들을 만난다.

화요일(오후 7시 30분)에는 ‘시 창작, 이론에서 실기까지’ 주제로 김청우 박사의 강연이 이어진다. 수요일(오후 7시 30분)에는 함께하는 인문학시간으로 노양진 전남대 교수가 ‘몸이 철학을 말하다’(전남대 강)을 토대로 강의를 진행한다.

목요일에는 각각 ‘무라카미 하루키 신작 ‘기사단장 죽이기’ 정독(오후 2시)과 위상복 교수의 ‘로코수의 철학 강의-맑스와 자본’(오후 7시 30분)이 이어진다. 토요일(오후 2시)에는 영화 덕후 시간으로 ‘영화인문학-연극영화 결자선’이 예정돼 있다. 토요일 특별강좌는 명혜영 교수의 ‘일본어로 읽는 인문학-철학영어어노감, 소설 독해’(오후 11시)와 ‘모토인’ 실습체험-가족시네마’남독연극(오후 2시)이 이어진다.

회원제 강좌별 등록해야 하며 참가비는 별도다. 네이버 카페 ‘광주 시민인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남실바람 솔솔~9월 대인예술시장 별장 6회 진행

9월 대인예술시장 별장프로젝트는 ‘남(藍)실바람’을 주제로 매주 토요일과 마지막 주 금요일 등 총 여섯 차례에 걸쳐 9월 예술시장을 진행한다.

2일에는 윤진철 명창과 배우 지정남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국악방송 ‘남도마실’ 녹화공연이 펼쳐져 흥과 신명을 부른다.

9일에는 사지골 통기타 거리공연단, 스타카토 리퍼블릭, 노래하는 전현성이 현란한 기타공연을 연다.

16일에는 여성성악그룹 ‘천상의 하모니’와 전자바이올리니스트 강명진, 팝페라 가수 ‘어썬싱어즈’의 감미로운 음악이 연인들을 심쿵의 세계로 몰아간다.

23일에는 (사)플레이 드림, 광주예술진흥회, 앙상

블 돌체가 클라리넷과 성악, 신디사이저 등 색다른 조합을 통해 음악의 진수를 선보인다.

29일에는 더드림 앙상블의 성악·현악연주, 더드림 싱어즈의 혼성성악 공연, 남성 성악팀 SC 싱어즈의 클래식 공연이 가을의 정취를 물씬 자아낸다.

30일에는 광주아버지합창단의 장르를 뛰어넘는 합창곡과 LOVE CLASSIC의 현악3중주와 성악, 셀라윈드 앙상블의 트럼펫·관악기 공연이 대미를 장식한다.

이밖에 대인문화창작소 지음과 한평갤러리에서는 전시회가 열리고, 책방 간사지, 빛고을 아우라, 아트컬렉션샵 수작 등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대인예술시장 별장 ‘유별난 극장’ 공연.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불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불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불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09시 오픈! 22시 마감!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풍향동 전통방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한우가격의 2/3

와규 갈비살 20,000원
와규 눈꽃살 25,0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불포화지방산(올리고산)이 대부분인 와규전문점
 - ▶ 돼지갈비 이상 메뉴 주문시 찜질방 20% 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